



50년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야기 < 11 >

제1차 연수생 일본파견과 부설농업기술연수원의 개원

- 4대결실운동의 제창, 시·도지부 유급상임간사의 임용과 제1회 시·도별농업기술자대회 개최 -

寒梅山房主人 白 甫 정장섭
(본회 상임고문)

이 원고를 집필하는 오늘이 새해 2005년에 들어와서 설도 지낸 지금이 벌써 2월도 중순이다. 지난날과 달과 해는 '과거' 라는 피안으로 사라지고 오늘도 해가 뜨고 새 날은 밝는다. 과거가 없는 현재도 없지만 현재가 없는 미래 또한 있을 수 없다. 영욕으로 얼룩진 역사에는 단절이 있을 수 있을까.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치욕의 지난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과거가 오늘의 역사에 맥락이 이어져 내린 사실을 아는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어제없는오늘도, 오늘없는 내일도없는것이역사

2005년을 한·일 수교 40주년이라 해서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두 나라가 서로 갖가지 기념행사를 연다고 한다. 행사를 열 되 몇 일후면 맞이하게 될 3·1절 86주년을 잊지 말자. 꼭 100년 전에 노·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곧바로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우리의 국권찬탈에 나서서 5년 후인 1910년 이른바 경술국치로 완전 병탄당하여 식민지화한 사실도 어찌 우리 잊으랴.

어쨌든 40년 전 한·일 회담이 잘못되었으니 심지어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한다. 40년 전 1965년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인 대충자금(대일)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 비료 한 포대를 생산할 수도 없었다. 당시 10대 수입상품의 금액과 물량에서 1위가 화학 비료였다. 그런 우리나라가 올해 북한의 요청으로 비료 50만 톤을 핵과 연계하여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란중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연산 80만 톤의 비료공장을 우리 기술진이 세워 주었다고도 한다. 어디 비료 한 가지 뿐이라. 분단 60년을 딛고 석유 한 방울 안나는 무자원의 작은 한반도인 한국이 세계무역반열에서 10위인가, 11위권에 서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인가 말이다. 역사에는 결코 가정이 있을 수 없다. 40년 전 동서냉전시대에 일본에서 엄청난 세력을 뻗치고 있던 조총련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성립이 되었다고 지금이라도 상상해 볼 일이다.

한 나라의 역사의 흐름에서 한 단체나 한 개인도 역사의 엄연한 구성요소이다. 오늘의 영광을 과거 치욕의 역사를 지금 바로 세운다고 해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외교는 국력이다. 당시의 우리의 국력의 한계를 한번쯤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40년전한국은비료한포대도 생산할수없었다

1965년 3월 9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에 대하여 전 야당과 각계대표 2백여명이 「대일골육의

교반대범국민투위를 결성하여 격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 말미암은 제3공화국의 제1차 최 두선 내각이 물러나고 정 일권 내각이 들어섰다. 6월 2일의 학생들의 데모에 이어 6월 3일에 학생데모가 확산되자 서울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6·3사태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 나라 안이 이처럼 소란스럽던 시절인 1965년 5월 30일에 우리협회는 제1차 일본국 파견 농업기술연수생 일행 10명이 장도에 올랐다. 민간단체가 해방 후 일본에 농업기술연수생을 파견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1965년 5월 29일 오전 11시 낙원동 건국대학교 재단이사장실로 농업기술연수생 일행이 출국인사차 유석창 총재를 예방하였다. 환송 오찬석상에서 유 총재는 “역사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선친을 따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으므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보다 선진한 나라이므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박차고 그들의 기술을 배워 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농민을 대표한 외교 사절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정신을 굳게 갖고 국위선양에 힘써야 합니다.”고 격려를 하였다. 송석도 부총재와 정장섭 전무이사도 환송 인사를 하였다. 이튿날 5월 30일 오전 8시 서울역에 송 부총재, 정 전무, 김성도 이사, 이진수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전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재건호’ 열차편으로 부산에 도착, 5월 31일 ‘아리랑호’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농업기술연수생 10명의 명단과 함께 당시의 ‘농업기술회보’는 보도하고 있다.

65년 5월 30일에 강원호 등 10명, 첫 파일 연수의 길에

이 원고를 쓰면서 제1차 파일연수생 파견의 경위에 대하여 FAO의 주선으로 보내게 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상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의 사진을 얻고자 제주도 강원호 지도위원(제주지부장과 본회 부회장직임)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다. 당시 건국대학교에는 농과계열의 단과대학 넷이 있었는데 즉 축산대학, 농공대학과 지역사회개발대학, 농업협동조합대학(농협대학은 그후 농협중앙회로 이관)이 그것이다. 농협대학 설립 당시의 학장이 최응상 선생이었고 FAO한국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최응상 학장이 FAO의 업무로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어 이사장인 본협회 유석창 총재에게 출국인사를 갔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유 총재는 최 학장에게 일본에 가서 농업기술연수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교섭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고 한다. 최 학장이 일본의 FAO와 교섭을 하여 농업기술연수생 10명을 받아주기로 약속이 되어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연수생 선발은 우리협회에서는 이창욱(부산시지부), 김동준(강원도지부 부지부장), 강원호(제주도지부 부지부장), 세 사람을 선발하였고 농협대학에서 3명, 농촌진흥청에서 4명을 선발하여 모두 10명이었다. 농협대학과 농진청에서 선발된 7명의 명단은 문수창(제주), 변성조(경남), 서동훈(전남), 한남수(전북), 강대웅(전남), 김경자(제주), 양한명(충북)으로 모두 10명이었다. 40년 전 당시의 농업기술연수생들의 각오와 결의가 어떠했는지 강원호 현 지도위원의 인사말에서 엿볼 수 있기에 여기에 옮겨서 소개한다. 강 지도위원은 당시의 명쾌한 파견경위 정보와 보관중인 귀중한



연수단 부산국제선 부두에서 출발직전(근성조유고) 뒷줄 왼쪽으로부터 서정원 FAO인솔자, 강대인, 서동훈, 한남수, 김동준, 양한명. 앞줄 왼쪽으로부터 김경천, 문수창, 강원호, 이창욱

사진을 제공하여 주었다.



집합연수소인 치바현과농업센터(농업시험장) 입구에서 왼쪽부터 강원호, 서동훈, 김동준, 양한명



연수생 파견을 합의하고 기념촬영한 미카도 육종농장입구에서 강원호

민족정신을 견지하고 외교시절같은 사명으로...

“존경하는 본 협회 유석창 박사님 이하 협회간부제위 그리고 전국방방곡곡에서 협회의 발전과 농업근대화의 중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구농전선에서 불철주야 고투하시는 회원동지 여러분! 계속되는 한발에 얼마나 신고 하십니까? 금반 우생은 협회의 주선 하에 전국 5,000여 회원 중에서 제1차 일본국 파견 농업기술 연수생으로 도 일하는 영광을 동지 여러분에 앞서 갖게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주선해주신 협회 측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6개월이란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서 돌아와 이 나라의 농업계에 또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소임이 중차대함을 느끼며 저 자신의 역량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오직 본 협회를 영도하시는 총재 유 석창 박사님께서 제창하신 본 협회의 이념이요, 우리회원의 나침반인 『5만개의 고구마 비대운동』 즉 원심운동으로써 말초의 농업기술조합 육성운동에 적극 순응해서 미력이오나 본 협회의 발전에 만분지 일이나마 공헌할 굳은 신념과 결의를 하고 여정에 오르는 바입니다. 부디 그간 회원 동지 각 위의 존당에 안녕과 번영을 비오며 일일이 진배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하옵고 감히 지상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충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불과 20년 만에 패전국인 일본이 오늘날 농본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보다 농업기술면에서나 다른 모든 방면에서 앞섰다 하여 연수생으로 머리 숙여 방일하는데 있어서 특히 한·일 회담이 절정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뜻있는 농업인이라면 뼈저리게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농업기술연수생이라고 하오나 기술을 연수하면서 현지의 환경이 허용하는 한 그들의 사회적 여건, 정치적 구조, 기술적 혁신, 농민의 자세, 기타 농민단체의 동향 등 각 방면에 걸쳐서 그들의 비기(秘技)를 선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생각하며 한국의 국위선양과 본 협회의 명예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 할 것을 총재님 이하 전 회원 동지 앞에 서약하면서 두서 없이 이로써 떠나는 인사를 갈음하는 바입니다.”라고 맺고 있다.

30여년이 어온 파일 연수사업 많은 인재 배출

이렇게 첫 출발한 파일 연수사업은 '90년대 상반기까지 약 30년 동안 이어져 우리협회의 큰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특기할 일은 연수생으로 일본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일본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연수생이 건국대학교 축산대출신의 황인규 박사와 한상섭 박사,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출신의 박재복 박사 세 분을 배출하였다. 연수생 출신들은 귀국 후 자영농 종사자들이 많지만 한편으로 농협운동과 농촌운동에 많은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이 수두룩하게 배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우호증진과 농업기술교류에도 앞장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음은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70년대 초에 학위를 취득하고 모교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한 박재복 박사를 지난주에 만났더니 다음달에 정년이 되어 교단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깜짝 놀랐다.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단 말인가? 제행무상이라. 파일연수사업 40년 동안에 제주도 출신의 김홍추(제주도지부 사무장)회우는 교통사고로 일본 현지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슬픈 일은 지금도 등에서 소름이 돋는 끔찍한 악몽과 같은 추억이다. 소상히 밝히기 부끄러운 불미한 사건도 잊혀지지 않는다. 3,4명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까지父子 파일연수 출신이 나오기도 하였다.

65년5월17일박해수경남지부장 농장에서 제2차상임이사회

1963년10월10일에 협회창립, '64년에 회보창간과 11개시·도지부의 조직, 그리고 '65년에 시·도지부의 유급 상임간사(상임간사로 부르다가 사무장, 사무국장으로 변경됨)의 임용, 4대결실운동의 제창, 연수생의 일본파견과 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의 개원, 제1회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의 개최 등등 초창기의 우리협회는 순풍에 돛을 단듯 쾌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업이 확장되면 될 수록 유석창 총재의 어깨는 더욱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부설 농업기술연수원 개원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협회의 초창기 이념인 4대결실운동의 제창을 빼놓

을 수 없다.

협회창립 1년만인 '64년 연말총회에서 제1차 개정회칙에 의하여 기획위원회가 신설되었다. '65년 3월 29일 14시에 낙원동 건국대학교 재단이사장실에서 기획위원회를 열고 ①연수원 개원계획안 ②각 시·도지부 유급간사 배치 안 ③상임이사회 개최안 ④시·군 지회결성독려 안 ⑤회보발행규정안 ⑥기타 안건 등을 다루었다.

이 기획위에서 유석창 총재는 농민들이 알기 쉬운 이념의 정립이었다. 지난 해 시·도 지부 결성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농가회원들을 체조선생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5만고구마 비대운동을 설명하였지만 체계화된 것은 아니었다. 곁에서 지켜보면 이념정립에 몹시 고심하는 것 같았다. 이념은 우리협회의 정체성과 진로를 밝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미 이 때 복지농촌 건설에 대한 상허의 철학이며, 이념을 「산업국가 건설론」이란 책을 집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핵심만 골라내서 이른바 「5만고구마 비대운동」이라 불린 4대 결실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다. 이 4대결실운동은 제1차 개정회칙에 의해서 구성된 제2차 상임이사회(11개시도 지부장)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총회 직후의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각 시·도지부장의 농장을 순회하면서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제2차 상임이사회는 1965년 5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경남 김해군 김해읍 어방동 소재 박해수 지부장의 농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재적상임이사 18명중 최덕환, 어경복이사만 불참하고 16명이 참석하였다.

박해수지부장의농장은4대결실운동을 발표한역사의산실

이 제2차 상임이사회는 4대 결실운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는 점과 협회 진로에서 여러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큰 회의였다. 필자는 40년 전 초창기 우리협회가 병아리 부화장과 계사와 운명적인 인연이 있지 않았나 싶다. 앞에서 연수원의

개원이 지지부진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그 연수원은 축산대학의 실습용 부화장 건물이었다. 우리협회가 스스로의 예산이 동전 한 푼 없이 유 총재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던 시절이다. 유 총재께서 건국대학교의 이사장이시지만 재단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이 어른이 농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말릴수도 없고 기어코 해내는 성품이었다. 부화장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다면 오늘날의 상식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겠는가 짐작 할만 하다. 많아야 50명 정도를 수용할 정면 왼쪽으로 강의실, 오른쪽이 숙소였다. 가운데 사무실은 2층을 콘크리트로 새로 지었고 책상, 의자, 주방기기 등등 요즈음 돈 으로 추산을 해 보아도 몇 천 만원으로는 어렵도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 협회운영비며 회의 때 회식비, 전국을 순방하는 숙박비와 출장경비, 강사에 대한 사례 등등 여기에다 시·도 지부장(상임이사)들의 압력(?)으로 유급의 상임간사까지 임용하게 되었으니 상허선생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만 갔다. 재단 간부들과 실무자들의 이러한 영똥한(?)일에 돈을 쓰시는 이사장의 뒷바라지를 위한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곁에서 늘 지켜보면 상허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궁색한 표시를 보이지 않았고 재단 간부들에게도 ‘하라!’ 든가, ‘해라!’는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명령어를 들어 본 일이 없다. 언제나 겸손하고 민망하리만큼 통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따뜻한 인간미로서 부하들을 움작 못하게 복속시키는 상허의 독특한 리더십에 훌륭한 인재들이 따랐을 것이다.

시·도지부장들의 분발단결과 결기를추구하고호소

박해수 경남지부장이 대농이기는 하지만 30여명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할 공간이 있을 리 없다. 양계를 하다 그만 둔 계사에 사과상자를 얹어서 탁자를 대용하고 허물어진 벽은 거적으로 가린 그런 회의장이었다. 이 회의에서 유 총재는 “...박 해수 지부장께서 ‘농업의 首都’ 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장에서 지부장 회의를 겸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전국에서 바쁜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부장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일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경사이며, 그 정성과 열의에 대해서 조국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도 지부장 한 분 한 분이 전 도(道)를 대표하므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도 각별히 이번 회합에 대해서는 열망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17일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역사적 회합의 하나로서 김해가 바로 역사적인 고장이 될 것이며, 박 지부장 덕이야말로 역사적 산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에 관한 제 문제를 토의 함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며,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기탄없는 비판과 상호 의견교환 및 구국방안을 토의하여 오늘 하룻밤을 조국을 위한 기도의 밤으로 갖자는 것입니다...”라고 전제하고 농업발전 5단계론과 3대 선행조건, 4대 결실운동을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그러므로, 오늘 이후 도를 책임지고 일으키는 역사적인 중책을 졌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사활(死活)을 걸고 투쟁을 하여 봅시다. 우리들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투쟁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담장이야말로 역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끝맺고 있다. 15명의 상임이사(11개 시·도 지부장 포함)들을 앞에 앉혀 두고 도도하게 털어 놓은 이 연설은 유석창 총재의 농민 운동에 대한 용도(雄圖)이며 기본 노선이며, 우리협회가 나아갈 이념이었다. 숙연한 분위기에서 경청하던 상임이사들은 유석창 총재의 참뜻을 이해하고 결의와 새 각오를 토론을 겸한 좌담에서 각자가 솔직히 피력하여 보였다. 김해 회의의 가장 큰 수확은 동지애를 더욱 돈독히 한 점이라고 하겠다. 이 회의에서 시·군지회 이하 의 규정과 조직요강을 심의하고 유급으로 상임간사를 시·도 지

부에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6회 전국대회와 기본방침 등을 협의하고 동래 온천의 대성관으로 옮겨, 유석창은 자정이 넘도록 토론과 좌담회를 주재 하였다.

인간용광로로서부설농업기술연원의개원

유석창 총재는 교육자답게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농업기술연수원을 서둘러 개원하여 농민들을 연수, 교육하는 일이었다. 몇 차례나 개원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1965년 7월 29일에 역사적인 개원을 보게 되었다.



1965. 7. 29 연수원 개원 제1기 수강생들에게 특강을 하는 고 유석창 총재

부설 농업기술연수원 직제 제1조에서 “회원으로서 하여금 농업기술의 함양과 농촌지도자로서의 심신도야를 함으로써 본회 회칙 제4조에 명시된 농사기술조합을 이끌고 나갈 역군을 교육훈련하기 위한 도장으로서 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유석창이 연수 교육에 얼마나 정열을 쏟았는가를 개원식의 격려사와 특강시간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연수원은 농민을 이끌고 갈 선도자의 인격 도야와 기술 연마의 도장입니다. 인간용광로입니다. 여러분은 짧은 일정이지만 돈오(頓悟)로써 새 사람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7월 29일 시·도지부 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종합보고에서는 그 목적을 “본회의 목적인 5만고구마비대운동을 구현할 회원들의 심신도야와 농업기술을 연수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고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7월 29일에 개원과 아울러 시·도지부 간사 11명을 대상으로 하는 2박3일간(7.29~31일)의 ‘연구반’ 과정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역사적인 제1기 수료생 11명의 명단은 수료증 순서대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수료증 제1호 김성도(서울특별시지부 부지부장 겸 상임간사)에 이어 정관일(부산), 조돈목(강원), 김진영(경기지부 부지부장 겸 상임간사), 문창주(경남), 임충기(경북), 윤용석(전남), 소기화(전북), 양한중(제주), 김준직(충남), 김진홍(충북) 등 11명이다.

시·군지회로조직확대의기간요원 129명을연수

제2기부터 제6기까지는 지회장 및 지회장 후보에 대한 연수로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3박 4일 과정으로 제2기 8월 21일에 개강하여 제6기 9월 16일까지 마쳤는데 129명이 수료하였다. 제1기 11명과 합해서 모두 140명을 연수 배출하였는데 전국 시·군 지회조직요원으로 활약하였다. 숙식비 등 모든 연수비용과 여비까지도 본회에서 부담하였다. 매기마다 유 총재는 특강과 좌담을 겸한 토론을 밤늦은 시간까지 주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는 진지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해 1965년에 제1회 각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가 열리고 열린 월일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9.18, 건국대학교, 900명), 강원(9.20·21 ‘2일’ 강원도공보관, 300명), 전북(9.22·23 ‘2일’ 전주고등학교, 700명), 전남(9.24, 광주고등학교, 350명), 제주(9.27·28 ‘2일’ 제주시민회관, 250명), 충북(9.29, 충북대학교, 300명), 경북(10.2, 대구농고, 400명), 경남(10.3·4 ‘2일’ 진주농대, 800명), 부산(10.4, 부산원예고등학교, 200명), 충남(10.8·9 ‘2일’ 대전시청및대전공전, 300명),

제1회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에 이어서 제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1965년 12월 12일(건국대학교 장안동교사), 13일(건대낙원동 교사)에서 이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A